

## <경주 문화 답사 보고서>

1. 참가자 : 경주문화누리 이○○

2. 답사 일정 : 2021.10.23. ~ 10.24.

3. 답사 장소 : 불국사, 석굴암, 동굴과 월지, 첨성대

4. 답사기 :

지난해와 올해 우리 생활을 집어삼킨 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 가족은 여행다운 여행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최소한 매 분기마다 우리나라의 문화 지역을 답사하고 경험하고 있는 우리 가족은 오랜 시간 문화 답사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어 무척 답답한 실정이었다. 이번 경주 문화 답사 활동에 선정되고 나서 무척 들뜬 기분에 체험활동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 19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 가족은 단지 답사의 목적을 넘어서 우리 가족 개개인의 머리와 가슴에 뭔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삼기로 했다. 사실 오랜만에 혼자 가야 답사로서의 의미가 커질 것 같아 비장한 각오로 그러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 것 같아 가족과 함께 차를 가지고 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경주의 태양을 보는 것이 멋진 시작이 될 것 같아 이른 새벽에 출발하기로 했다. 경주는 자주 가족과 함께 여행갔던 지역이라 지리에 익숙하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유있게 돌아보고 오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출발하였다. 우리 가족은 10월 23일 아침 드디어 신라문화유산의 산실인 옛수도 경주를 뺄 수 있었다. 너무 이른 아침에 도착해서인지 조금은 어두웠지만 우리의 마음은 밝았다. 식상한 표현이지만 낯선것의 대한 설레임이랄까...

시원한 아침부터 우리는 석굴암으로 향했다. 예전에 우리 가족이 석굴암을 보기 위해서 낮에 도로에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렸던 기억으로 우리는 아침에 경주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석굴암으로 향하였다. 석굴암은 유리로 막아 밖에서 보도록 되어 있었다. 이끼같은 것이 자꾸 끼어 뺨손이 많이 되어 그런 방법을 취했다고 한다. 가까이서 국보 24호인 본존불을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지만 유리도 본존불의 자비롭고 온화한 아름다움을 감출 수는 없었다. 선하면서도 온화한 눈매는 모든 잘못을 사할 듯 보였고 두툼한 입술과 큰 귀는 군자의 풍모를 갖춘듯했다. 아무생각없이 한동안 바라만 보았다. 그러나 본존불만 소중하고 뛰어난 것은 아니었다. 십이면 관음보살상 역시 그 어느 조각보다 정교하게 조각되어 석굴 안에서 가장 중요한 본존불 바로 뒤에 배치 되어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많은 조각이 있었다. 훌륭하고 뛰어난 조각품들이 이렇게 서로에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보지는 못했지만 삼층 석탑이 있다고 했다.

석굴암은 일제 시대에 세 차례의 복원공사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석굴암을 완전 해체하고 잘 조립하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불상들의 위치와 석굴암의 정확한 구조를 전혀 알 수 없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습기가 많은 자연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천년을 넘게 버티 온 석굴암은 그 자체가 과학 기술의 결정체라 할만큼 우수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환기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

능이 있었으나, 보수를 하면서 당시 신 소재로 각광을 받던 시멘트로 석굴암 돌레를 막아버렸다. 결국 이는 석굴암 내부에 습기가 차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이 후 석굴암은 해방 뒤 혼란한 사회 속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가 다시 우리 손으로 복원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일제가 만들어 놓은 시멘트 벽 때문에 내부 벽면에 물방울이 생기는 등 보존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자 실내 습도를 유지한다하여 일차 시멘트벽 위에 공간을 띄어놓고 다시 시멘트로 발라놓았다. 그러고는 따로 인위적인 환기장치를 석굴암 내부에 마련하였다. 또한 석굴암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연 조건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목조 전실을 설치하고 또 목조 전실과 석굴암 사이에 유리벽을 설치했다. 이렇게 앞뒤로 외부와 완전 차단된 석굴암은 이제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래서 인위적인 조절이 없으면 안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부끄러웠다. 선조들의 뛰어난 예술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은 내가 아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작품을 가슴으로 느끼고 소홀한 작품관리의 실상을 동시에 들으니 부끄러운 감정이 들었다. 어설픈 사명감의 파편인 듯 했다.

우리는 경주에서 맛있다고 정평이 나있는 김밥 전문점에서 간단하게 점심식사를 한 후에 차로 불국사로 향했다. 차로 가기엔 가까운 거리였다. 불국사 입구에 도착하자 세계문화 유산이라는 글씨가 내 눈에 들어왔다. 정말 우리의 문화재가 세계에서 손꼽힌다는 점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되었다. 나는 그 글씨를 뒤로 한 채 불국사 입구로 들어갔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넓은 입구, 아름답게 핀 개나리, 대나무 등 많은 것들이 불국사로 향하는 길에 있었다. 그리고 다리, 시냇물도 있었다. 불국사는 사찰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공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을 지나친 뒤 사천왕문에 다 달았다. 불국사 앞에 도착하여 연화교, 칠보교, 청운교, 백운교를 보았다. 위쪽의 16개의 계단이 바로 백운교이었고 아래쪽의 18개의 계단이 바로 청운교였다. 이 돌계단을 따라 가면 자하문을 거쳐 대웅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청운교 밑에는 무지개처럼 둥근 돌보 모양으로 만들어진 흥예문이 있다. 이런 모양은 고요하고도 안정된 석축에 곡선의 변화를 일으켜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운을 불어 넣어주고 있었다. 원래 석축아래에는 연목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계단왼쪽에 토함산의 물을 끌어 들여 연못으로 물이 떨어지게 한 수구가 남아있다. 이 수구에서 연못으로 물이 떨어지면 거기서 이는 물보라에 무지개 떴다고 한다. 못 위에 놓으니 청운, 백운교와 연화, 칠보교, 긴 회랑과 경루, 종루 등 높은 누각들이 거꾸로 물위에 비쳐 절경을 이루었을 것을 상상하니 그 아름다움에 빠져드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다리들은 현재 파손에 위험이 있어서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밖에는 당간지주 2개가 있었다. 그래서 옆에 난 길로 올라가서 불국사 대웅전에 다 달았다. 대웅전 앞에는 다보탑과 석가탑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자신의 미를 뽐내고 있었다.

다보탑은 국보 제 20호로써 사면으로 계단을 놓은 사각의 육중한 기단 위에 날개를 편 듯 힘찬 추녀가 가로 뻗친 사각 기와집 형식이며 그 위에 연꽃잎 모양으로 창문을 낸 팔각경이 세워진 3층 양식의 화려한 탑이다. 화려한 다보탑에 비해 조금 더 온화해 보이는 석가탑은 국보 제 21호로써 통일신라 삼층석탑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 석가탑은 창건 이후 상륜부를 제외하고는 큰 손상 없이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예전 석탑에 보수공사 중 사리 장구업과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물이라 할 수 있는 무구정광다라니경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대웅전은 불국사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말 큰 사찰답게 대웅전에 크기도 여마어마하였다. 그리고 대웅전의 내부 전면에는 수미단이 있고, 그 위에 석가삼존불이 모셔져 있다. 그리고 미륵보살과 갈라보살,

마한가섭과 아난의 두 제자상이 모셔져 있었다. 그리고 극락전, 관음전, 나한전, 등을 차례차례 보았다. 정말 크기도 크고 보물도 많고 역시 세계의 문화 유산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였다. 이밖에도 사리탑, 2개의 좌상등 많은 국보가 있었다.

다음으로 간 곳은 가장 기대했던 첨성대(국보 제 31호)였다. 넓고 쾌적한 잔디밭에 첨성대가 서 있었다. 첨성대의 크기는 높이가 약 9.17미터 저면의 직경이 약 5.17미터이었다. 첨성대가 별의 운행은 물론이고 일식 우러식 등 천문을 관찰한 외에도 길흉을 점쳤다고 하는데 서양이나 동양이나 천체의 움직임을 보고 운을 안다는 것에 대해 묘한 일치감을 느꼈다. 첨성대는 언뜻 보기에 는 예술미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투박하다. 첨성대는 가운데가 가늘고 상하가 투박하면서도 전체적인 균형이 잘 잡혀 있었다. 일년을 나타내는 360여개의 도로 축조되어 있는 점, 저부의 수 경을 이용하여 관측한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숙소가 될 석등이 있는 집으로 향하였다. 우리의 숙소도 아주 유명한 문화재의 하나로 문화 유적에서 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무척 여유롭고 행복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간단한 식사를 한 후에 동궁과 월지로 향하였다. 동궁과 월지는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때는 안압지라는 이름으로 배웠던 유적이 언제부터인가 동궁과 월지로 바뀌어 있어 처음에는 혼돈이 조금 있었다. 동궁과 월지는 야간 경치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 가족은 답사 일정 상 야경을 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아름다운 물과 함께 조금은 추운 날씨였지만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다.

우리의 경주 문화 답사 계획은 많았지만 시간에 쫓겨 여유롭게 음미할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 무척 보람있었던 답사였고 우리 가족에게 오랜만에 우리나라의 신라 문화와 삼국유사에서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경험을 되새길수 있게 한 경주와 함께 한 1박 2일이였다. 자연과 유적지를 보며 인생 목표를 다지기보다는 작은 것 눈에 띄지 않는 것의 존재를 느끼고, 우리 안의 여러 감정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